

# Kafka 作品에 나타난 法(Recht)과 權力(Macht) 研究

권 오 상\*

## 目 次

- |              |             |
|--------------|-------------|
| I. 序 論       | IV. 열려있는 監獄 |
| II. 當事者와 第三者 | V. 結 論      |
| III. 土着 勢力   |             |

## I. 序 論

Kafka의 거의 모든 작품에는 법률적 용어나 벌률이론적 내지 사회철학적 상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를 법률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법률적인 것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체험복합체들 속에서 불문율적 인 규범들의 세계, 사적 세계, 심리적 세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Kafka의 箴言들과 斷章들을 토대로 그의 법에 대한 생각들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 II. 當事者와 第三者

Kafka는 그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한 箴言에서 다음과 같이 메모해놓고 있다: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교수

실제로 판결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그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판결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그것의 희미한 빛이 있을 뿐이다.(H64)

당사자는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과 관련될 때는 소송의뢰인 개개인이나 소송의뢰인측과 소송대리인측 사람들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상대방과의 대립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관심사, 행동동기와 자기의 일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상대방의 행동동기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상대방이 그를 알고 있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대립하고 있는 두 당사자들 중의 하나로서, 전체의 일부로서 오직 자기의 특수한 욕구에 따라 즉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는 인식론과 권력심리학이 뒤엉켜 있다. 인식과 욕구, 판결과 권력이 관련을 맺게되고 이 관련은 이성적 모랄을 무력화시키거나 이 이성적 모랄이 형성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라 판사로서 판결을 내려야하는 第三者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제삼자 자신이 제삼의 '당사자'에 속하거나 아니면 두 당사자들 중의 어느 하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Kafka의 작품에서는 예를 들어 "Das Urteil"과 "Der Prozeß"에서 처럼 언제나 두 당사자들만이 등장하며, 판사와 고소인이 하나인 것이다. 규범이 되는 法典 역시 幻想으로만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인다. 어쨌든 법전은 두 당사자들의 싸움과 세력관계에는 부차적인 것 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사가 판결하면 그것이 바로 법이 된다.<sup>1)</sup> 법이 소송절차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즉 선고가 법을 만드는 것이며, 더욱이 이 때 선고는 선고를 내리는 자에 내재하는 권력에 의거하는 것이다.<sup>2)</sup> 선고가 법이라는 이러한 입장(Dezisionismus)은 그러므로 '판결가능성'의 '희미한 빛'만을, 즉 상대방을 고려하고 인정해서

1) Hans Helmut Hiebel: Die Zeichen des Gesetzes, S. 80.

2) Gilles Deleuze / Felix Guattari: Kafka. Für eine kleine Literatr, S. 62.

하는 행동의 희미한 빛만을 허락할 뿐이다. 이 때 존재하는 '희미함'의 정도를 Kafka는 미확정상태로 남겨놓고 있으며, 그것을 다가오는 아침과도 지나간 저녁과도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아마도 Kafka의 '터널'의 隱喩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터널 안에서 사람들은 "입구의 빛도 보지 못 하고, 출구의 빛은 아주 희미해서 계속 추적해야하지만 계속해서 놓쳐 결국 출구도 입구도 이제는 확인하지 못 하게 된다." (H73) 역사적으로 보면, 불법의 세계에서 이 '판결가능성'의 '희미한 빛'은 신학적, 자연법적, 이성법적 그리고 역사철학적 幻想들이 빛어내는 微光에서 연유하는 것 처럼 보인다.

이 환상들이 과거에서 빛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Kafka 작품은 중요한 부분들에서 이처럼 빛과 같은 이상의 소유자들을 현실의 권력과 충돌시켜 지치도록 만들고 있다. Kafka는 Karl Roßmann, Josef K. 그리고 K.를 Don-Quixote의 인물들 처럼 자기의 장편소설의 현실 속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선고가 법이라는 입장 또는 속일 수 없는 권력의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희망'이랄 수 있는 '희미한 빛'은 남아 있다 - "다만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닐 뿐"이다.<sup>3)</sup>

Josef K는 자기의 일년간의 소송,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일생동안의 소송에서 最終審級에 도달하지 못 한다. "내가 아직 단 한번도 와보지 못했던 고급 법정엔 어디에 있었는가?" (P272)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상의 심급에 파견된 위원들이 권력의 대표자들인지 아니면 아마도 정의의 대표자들인지는 영원히 未濟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sup>4)</sup>

'법'(Gesetz)은 발견키 어려우며,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사자들의 싸움의 법 뿐이다. 이 법은 Michel Foucault가 발전시킨 일종의 권력개념이다. 권력은 생산기구들, 가정들, 몇몇 그룹들, 연구시설들에서 생성되어 영향을 행사하고 사회조직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광범위한 분열의 토대로 이용되는 다양한 힘관계들의 영역이다.<sup>5)</sup> 법률적인 것은

3) Max Brod: Über Franz Kafka, S. 71.

4) Vgl. Gerhard Kaiser: Franz Kafkas "Der Prozeß". Versuch einer Interpretation, in: Euphorion 52, 1958, S. 23 - 49.

그렇게 되면 단순한 최종적 복합체로, 불문율의 규범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밀려나는 복합체로 나타난다.<sup>6)</sup> Foucault에 의하면 법은 Hegel 변증법에 따라 상호를 인정해서 얻어진 ‘보편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법의 대행자들은 “보편적 입장”<sup>7)</sup>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며, 경찰과 법의 감시인은 “보편성을 보장하는 권력”이 되지 못 한다.<sup>8)</sup> 법과 규범들은 오히려 권력의 기능들인 것이다. “법의 상태”는 Kafka의 잠언에서도 그렇지만 Nietzsche에 의하면 “언제나 특수한 상태로 부분적으로는 권력을 지향하는 원래의 생의 의지를 제한하는 것이어서”<sup>9)</sup> ‘편파적인’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힘관계들의 조정상태라 할 수 있다.

법이론, 윤리학 그리고 법철학등은 분쟁에서 중요한 사회행동규범법칙으로서의 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실제의 규범들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동의, 상호 인정, 계약을 근거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규범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권력과 통치를 근거로 어느 정도까지 부당한 것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10)</sup> 실제의 규범들이 이들 부당한 규범 속에 자리잡는 경우 모든 법의 보편, 평등지향의 경향은 당연히 왜곡되고 근본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된다. Kafka의 잠언은 이와 같은 법의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판결당사자들은 우선 행동의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데 보편성을 지닌 규정과 관련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당사자들의 소송에서 제삼자는 실제 통용되고 있는 법에 따라 결정을 한다. 그러나 정의를 쟁취하려는 결정불능의 소송을 그는 상술의 전제를 토대로 판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삼자는 Kafka에 의하면 어느 한 ‘당사자’로 격하되고 결과적으로 오직 소송당사자들의 권력관계에 따라 판결은 곧

5) Michel Foucault: Sexualität und Wahrheit, S. 115.

6) Ebd., S. 113.

7)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S. 367.

8) Ebd., S. 382.

9) Friedrich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S. 817.

10) vgl. Paul Lorenzen / Oswald Schwemmer: Konstruktive Logik, Ethik und Wissenschaftstheorie, S. 107 - 129.

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Der Prozeß”, “Amerika”, “Das Schloß”, “In der Strafkolonie” 등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Kafka는 실제의 규범들 안에 합법성의 요소들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는 언제나 미결의 장으로 남겨놓고 있다. Occidental 호텔에서의 Karl Roßmann의 해고는 아주 부당하게 보이지만 극단적인 분업사회의 필연적이고 총체적인 규범화로 볼 때 어떤 점에서 보면 정당한 것이 아닐까? Karl이 있고 있었던 승강기 ‘복무규정’에 따르면 그는 Robinson과 함께 승강기를 떠나기 전에 전화로 신고를 해야만 했었을 것이다.(A196) “Das Schloß”에서도 역시 K가 자기의 일을 진척시키지 못 하는 것은 권력당국이 측량사로서의 그의 임무를 철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가 이 임무를 단지 꾸며대서 그런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sup>11)</sup>

‘법’(Gesetz)같은 것이 법전으로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의 ‘편파성’과 부당함 그리고 권력의 확고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 ‘편파성’은 단 한번도 분명하게 증명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패러독스한 Max Weber의 ‘합법적 통치’ 개념은, 합법성 보다 통치에 더 무게를 두는 경우, Kafka의 관심사를 간결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이 ‘합법적 통치’는 그것이 비록 어느 정도의 복종의무 내지 강제력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동의와 찬성에 기초하고 있다.<sup>12)</sup> 가장에 대한 예속, 신분상의 예속 관습을 토대로 한 ‘전통적 통치’, 개인의 강한 영향력과 여기에 상응하는 준비된 복종을 토대로 한 ‘카리스마적 통치’, 그리고 투표와 정관을 토대로 한 현대의 ‘준법적 통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준법적’ 통치 역시 통치이며, 더욱이 합법성인정과정에 선행하는 카리스마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들과, 강요의 원칙, 다수결원칙을 토대로 하는 통치인 것이다.<sup>13)</sup> 자의적인 횡포로서의 ‘세력’과 구별되는 통치는 따라서 ‘합법적’이긴 하지만, 강제력으로 부터

11) Vgl. Ralf Nicolai: Ende oder Anfang. Zur Einheit der Gegensätze in Kafkas Schloß, S. 55.

12) Max Weber: Die Typen der Herrschaft,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2 Bde., S. 157 - 222.

13) Max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S. 27.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되지는 못 한다. Kafka는 합법적인 통치에서 다만 합법성 혹은 정당성의 희미한 빛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Partei’란 말은 Kafka작품에서 거의 모든 말이 그렇듯이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정당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특히 분규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은 광범위한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 비유적인 의미가 이 말을 유태어인 “Thora”라는 법개념에 근접시키고 있다. “Thora”는 법적, 윤리적, 종교적 그리고 사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다. Thora의 지시사항들은 법전 속에서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주석은 Haggada의 서사적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서사적 부분들은 Halacha의 법규들에 첨부되어 있다. Thora의 주석은 법을 법전 속에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석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로 인해 일종의 주석과정이 형성되어 이 과정은 원칙적으로 종결될 수 없는 것이다.<sup>14)</sup> Kafka의 법개념은 이와 같은 전통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다만 Thora의 지시사항들이 그에게서는 지시내용이 없는 말들로, 속수무책의 비유들로 바뀌고 있을 뿐이다.

‘Partei’에 관한 本稿 앞 부분에 引用된 잠언은 지시하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잠언이 법률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이 잠언 바로 앞에 기록된 비유적인 이야기가 확 인해주고 있다:

인간들의 행동들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무효이다. 즉 처음에는 부합하지만 나중에는 무효인 것이다.

오른 쪽 출입문으로 이웃 사람들이 가족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방 안으로 몰려들어가서, 마지막 연사의 마지막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왼 쪽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몰려나와 자기들의 판단을 외쳐댄다. 그 말에 대한 판단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14) Gershom Scholem: Über einige Grundbegriffe des Judentums, S. 109.

판단 그 자체는 무효이다. 그들이 사실에 부합하도록 판단을 내리려고 했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방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위원회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다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했었을 것이다.(H64)

판단을 내렸던 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도록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배웠을 것이지만, 반면에 그들은 가족위원회의 일부로서 이제는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내리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족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알게 됨과 동시에 그들은 이 이야기의 일부로 되었을 것이고,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알게 됨과 동시에 그들 자신이 그 욕구를 공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가정이 사회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소송당사자들’이라는 이 성찰의 비유가 역의 형식으로 다시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사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으로도 이해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Kafka의 비유는 법전 속에 확정될 수 없는 법, 분쟁의 종결불능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 비유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속수무책 그것이다. 판결이라는 상위영역은 편파적인 욕망이라는 대상영역으로, 제삼자는 한 ‘당사자’로 드러난다. Kafka의 성찰은 사건을 특수한 사건으로만 인식하며 모범이 될 수 있는 개별적 사건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15)</sup> 상기 인용문은 모든 판단의 신속성을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건은 그것의 역사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특수한 사건이며 이것을 보편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개 상황의 인식과정 그 자체가 인식착오의 과정이 된다는 것은 패러독스하다. 시대를 초월해서 순수하고 논리적 내지 윤리적인 이성의 판단이 역사적이고 우발적인 힘들과 욕구들의 그물 속으로 뒤엉켜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영역에서 주체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은 Kafka 작품에서는 자기판단 영역에서 다시 나타난다. 자아의 독립성 역시 Freud에서 처럼 무의식적인 세력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다. 다음의 잠언을

15) Andre Jolles: Einfache Formen, S. 179.

생각해보자.

영혼의 관찰자는 영혼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가 그것과 접촉하는 경계선은 존재한다. 접촉에서는 영혼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 한다는 인식이 얻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미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 틀림없다. 영혼 외에 다른 무엇이 존재한다면 서글픈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H69)

思考機關인 자아의 판단은 편파적으로 되고, 무의식과 초자아의 힘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내맡겨진 상태이며, (외적 현실의) '부정'과 (내적 현실의) '억압'의 형태로 인식과 오인을 결합시키는 소망과 불안에 의해 왜곡된다.<sup>16)</sup> "사고하는 곳에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사고하지 않는 곳에 나는 존재한다."<sup>17)</sup>는 J. Lacan의 기본적 사고의 일부가 Kafka의 발언에 대한 주석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 모두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리일 수는 있다."(H69)는 잠언이 여기에 부응하고 있다. '진리'는 무의식적 힘들과 욕망들 속에 들어 있는데, 이들은 판단이나 성찰을 통해서는 끌어내올 수 없는 것이다. Kafka의 이와 같은 사고형태는 판단의 사회적 영역에서 비슷한 표현을 갖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진리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것을 필요불가결한 것으로만 여겨야 한다."(P264)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 필요불가결한 것이 '진리'의 '존재'이며 이것은 누구나가 다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립적이라고 생각되는 '주체'는 '판단가능성의 희미한 빛'만을 체험하고 그것을 도깨비 불 따라가듯이 추적한다. '정의'에 대한 이와 같은 환상은 Kafka 작품에서는 그것이 집요하게 파괴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은 考案物로서 전적으로 권력의 수단으로만 기능하지만<sup>18)</sup>, '희미한 빛'에 대한 기대는 법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희망이 없는 희망, 정의지향의 법이

16) Vgl. Anna Freud: Das Ich und die Abwehrmechanismen.

17) Jaques Lacan: Schriften III, S. 43.

18) Friedrich Nietzsche: a. a. O., S. 812.



없는 법, ‘판단가능성’이 없는 ‘판단’ 원칙이라는 페러독스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III. 土着 權力

#### a) 軍과 市民

Kafka는 한 짧은 묘사에서 시민과 군을 대결시켜놓고 있다.

두명의 군인이 와서 나를 체포했다. 나는 저항했지만 그들은 나를 짊어 붙들었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상관인 한 장교에게로 데리고갔다. 그의 군복은 정말 눈이 부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시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장교는 “당신은 시민이지만 우리가 당신을 체포하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미소하며 말했다.(H172)

위와 같은 상황은 “Der Prozess”의 체포장면에서 반복되고 있다. Josef K.는 이 장면에서 두명의 감시인, 그리고 그들 감독관과 대결했던 것이다.(P9f) 권력(내지 그것의 도구로서의 권력기관)이 법과 질서를 보장한다고 믿고서 그 ‘시민’은 자기가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모든 대응 조치를 하지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은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기반을 잡은 권력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반란이 시민적 질서체제의 이면에 잠복해 있는 폭력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보일 수 있는 것 처럼 이 불법개입은 ‘시민’의 법에 대한 환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전통적, 카리스마적 그리고 합법적인 통치형태들 이면에 숨어 있는 정치적 폭력들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부모들 그리고 연장자들의 보호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소위 순진무구한 어린이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모든 권력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언어행위 하나라도 모두가 권력 즉 군의 전략에 맞추어져 있다. 군과 시민 즉 싸움의 부류와 법에 충실하고 질서를 사랑하는 부류가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Nietzsche는 동일한 구상을 “Zur Genealogie der Moral”에서 확고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합법과 불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래 의미가 없다. 물론 상해, 폭력, 파괴등은 원래 불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인생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위들 속에서 영위되는 것임으로 이런 특성없는 결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우려해야 할 일은 고도의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법의 상황은 언제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권력의 단위들을 창조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이다.”<sup>19)</sup> ‘재판’(사법권)이란 Nietzsche이 견해에 의하면 ‘대충 동등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타협하는 것, 즉 타협을 통해 서로 양해하는 것이며, 힘이 약한 자들에 관해서는 이들에게 타협을 강요하는 것이다.’<sup>20)</sup>

상기 ‘군’에 대한 Kafka의 잠언에는 또한 위대한 (가정 또는 사회의) 어머니의 보호영역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가 단념이나 겸손의 법들이 통하지 않는 경쟁자에 의해 도발을 당한 자의 놀라움이 숨겨져 있다. 군은 ‘제삼자’ 내지 타자인 것이다. 민간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머니와 같은 Grubach 부인의 하숙에서 Josef K.에게도 일어난다.

상징적인 요인들(‘군복’)과 위협적인 언어행위(‘군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를 근거로 폭력은 ‘사병들’과 ‘장교’로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육체에 가해지는 힘의 수단이다. ‘시민’의 체포가 바로 그 수단이다. 최종적인 고유의 수단으로서의 법, 그리고 법의 근본적 토대로서 그것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 바로 폭력 그것을 Kafka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M. Foucault는 세력에 대한 그의 이론적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다: “법이 비무장일 수는 없으며, 그것의 가장 훌륭한 무기는 죽음이다.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법은 최종심에서 죽음의 위협을 가한다. 법 뒤에는 언제나 칼이 있다

19) Ebd., S. 817.

20) Ebd., S. 812.

.”<sup>21)</sup> 그러나 Foucault는 규범들의 문화(규율훈련, 감시, 절약, 생산성극대화등의 현대체제)를 법의 세계와 구분하고 있다. Kafka에게는 현대적 사회수법들 뒤에도 언제나 ‘칼’이 있다. 이 수법들은 Foucault에 의하면 억압이라는 단순한 세력의 모델을 대치하고 있다.<sup>22)</sup> 폭력의 상징들이 Kafka 작품 도처에 등장하고 있다. “Amerika”의 첫 부분에는 알다시피 알레고리 처럼 ‘칼’을 든 ‘자유여신상’(A9)이 있고, 선장은 ‘군도’를 차고 있고, 외삼촌은 ‘대나무지팡이’를 갖고 있다.(A20) “Die Verwandlung”의 아버지는 ‘지팡이’로 무장하고 있고(SE78), “In der Strafkolonie”의 대위는 ‘채찍’을 지니고 있다.(SE119)

## b) 法에 對한 幻想과 警察

교훈적인 내용의 다른 성찰에서 Kafka는 ‘민간인’과 ‘군’의 관계를 정반대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성찰에서는 국가의 통치력이 시민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국가의 통치력을 불러내고 있다.

모든 것, 가장 익숙해 있는 것 예를 들어 식당에서의 고객에 대한 봉사를 그는 경찰의 도움으로 억지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의 편의성을 빼앗아가는 것이다.(H394)

관련기관이 힘겨루기에 개입하기 전까지는 시민사회의 질서는 권력관계라는 것이 드러난다. 현대 법률관계들의 토대가 되는 거래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거래는 원래 외형적으로만 사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공정한 행위일 뿐, 재산관계의 불균형을 가려주는 신비스런 베일인데<sup>23)</sup>,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손님이 이 거래를 강요할 만큼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봉사의 거절은 에디푸스콤플렉스의 유산인 자신감의 결여로서의 ‘힘’의 결여를 드러내보여주는 심리적 신호들에

21) Michel Foucault: Sexualität und Wahrheit, S. 171.

22) Ebd., S. 101.

23) Karl Ma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S. 907.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해진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신호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인종적 특성들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인가? Kafka의 텍스트는 거의가 다 권한은 전혀 없는 세기말 Prag 유대인들의 치외법권을 암시하고 있다.<sup>24)</sup> 어쨌든 권력의 不文律의 영역, 즉 不文法들의 분야가 나타난다. 법의 국가귀속성과 그것이 귀속된 법적 기구를 환상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손님은 증거로 법과 질서의 보증인이라고 여겨지는 국가권력을 불러내는 것이다. ‘군’과 ‘시민’에 대한 상기 이야기에서 화자는 그가 겪어야 했던 체험으로는 아직 자기의 순진함을 어느 정도 까지는 간직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식당주인의 ‘편’에 가담하지 않을 까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첫 문장의 ‘받아야 한다’는 직설법적, 반복적 의미가 아니라 접속법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봉사받는 일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이점에서 역시 ‘편파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님 慾望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받아야 한다’가 실제로 직설법적 의미라면 그와 같은 행동의 필연성 역시 동일하게 편파성의 증거일 것이다. 불문법에 대해 법과 국가권력은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기력할 것이다. ‘시민의’ 생활 역시 권력관계, 힘들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장 주체의 나약함과 타인의 도움에 대한 의존성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삼자, “조정자들”(SE322f)에게 구원요청이 행해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약자는 자기의 법에 대한 환상을 실제화하고 있다. 위에 인용된 상황은 망상조직형태인 권력관계의 아주 작은 구성요소들을, 즉 “권력의 미시물리학”<sup>25)</sup>을 언어행위와 몸짓과 상징등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제 ‘군’만 토착권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생활 역시 상호간의 권력관계의 장으로 등장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등장 주체의 힘의 부족 즉 나약함은 심리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힘의 부족의 起源을 우리들은 ‘자신감’과 ‘무한의 죄의식’의 교환(HI43)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Brief an den Vater”에서 알 수 있다. 권력은 역으로

24) Christoph Stölzel: Kafkas böses Böhmen. Zur Sozialgeschichte einse Prager Juden, S. 20.

25) Michel Foucault: Überwachen und Strafen, S. 38

無力으로 바뀌어 심리지도에 투사되고 그 像을 외부세계로 반사한다. '경찰'에게 구원요청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기도 하다.<sup>26)</sup>

불문법, 더 범위를 좁혀서 덤불숲같은 심리학은 권력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권력의 미시물리학은 아주 정확하고, 불투명하며, 의식되지도 않는다. 그것이 이룩한 성과는 Foucault가 언급하고 있는 것 처럼 자기의 체제를 숨기는 그것의 역량에 상응한다.<sup>27)</sup> '불법'에서 다른 불법으로, 심리에서 다음 심리로 이어지는 "Amerika"는 奉仕에 관한 상기 텍스트가 언급하고 있는 불법법 지대를 명료화하는 데에 충분하다. 火夫와 Schubal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Karl Roßmann의 운명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첫 번째 심리에서는 자신감 없고 혼란스러운 화부의 연설이 심사원의 판단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는 땀을 흘리며 말을 했다. 창문틀에 놓여 있는 서류들을 그는 오래전 부터 손이 떨어 붙잡지도 못 했다. 사망으로부터 그에게 Schubal에 대한 탄원들이 밀려왔다. 이 탄원들 중 어느 하나라도 Schubal을 매장해버리는 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화부가 선장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서글프게도 모든 것을 길게 뒤죽박죽으로 늘어놓는 장황한 설명 뿐이었다."(A21) 사회적, 심리적으로 야기되는 자신감 결여와 나약함이 소송을 결정한다. 보다 힘이 있는 측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판결이 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요청받았던 Karl Roßmann은 선장, 기업가인 Jakob, 출납계장, 항만청 관리등으로 구성된 법률카르텔 측에 가담하게된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자신도 마찬가지로 불법법을 근거로 운송업자인 외삼촌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된다.

### c) 調査 : 不文律의 權力들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에 나오는 또 다른 텍스

26) Hans Helmut Hiebel: a. a. O., S. 87.

27) Michel Foucault: Sexualität und Wahrheit, S. 107.

트에서는 권력 기관을 구성하거나 복종자세를 취하도록하는 데는 한번의 응시와 한번의 질문만으로 충분하다.

“자 그러면?”이라고 그 신사는 말을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의 넥타이를 만졌다. 나는 그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전적으로 나의 의사로 몸을 약간 옆으로 돌리고 점점 더 긴장된 눈으로 책상 위를 마치 그곳에 구멍이 하나 뚫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 처럼 들여다보다가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그 때 나는 “당신은 나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크게 소리내어 웃으면서 “나의 권한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요, 나의 권한은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요, 나의 권한은 내가 질문한다는 것이요, 나의 권한은 당신이 나의 말을 알아 듣는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라고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을 조사하겠습니다. 당신 의자를 갖고 약간 뒤로 가십시오. 당신은 나를 비좁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지말고 나의 눈을 똑바로 보시오. 나에게서는 당신의 답변을 듣는 것 보다 당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일지 모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 준 후 그는 “내가 누구 입니까?”라고 심문을 시작했다. “나의 조사관입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물론입니다, 또 나는 무엇입니까?”라고 그가 말했다. “나의 아저씨”라고 나는 말했다. “당신의 아저씨라니, 그런 어리석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는 외쳤다. “나의 아저씨입니다, 보다 더 나은 것은 없군요.”라고 나는 힘주어 말했다.(HI81)

화자의 시선이 책상표면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가 (무의식적으로)복종의 준비를 갖추고 제안받은 놀이 즉 조사담론에 동의를 하고, 이것을 “당신은 나를 조사하려고 합니다”라는 가정으로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등으로 미루어보아 화자가 자유의지로 조사관의 시선을 이겨낸다고 주장한다면 여기에는 정신분석학상의 “否定”행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권력기관은 타자(상대방)의 자신감 결여를 토대로 설치될 수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역시 이 기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이 조사가 질문의 형식을 갖춘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의사소통이론은 담화에서는 질문형식의 구두법이 언어 영역에서 중요한 세력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sup>28)</sup> “질문”이라는 의사소통 행위와 대화의 동기부여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다. 권력의 “미시물리학”은 담화전략과 의사소통행위 형식들을 수립해놓은 가운데 중요한 공략대상들 중의 하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화자는 물론 처음에는 이 권력에 대처하지 못 한다. 그는 이 텍스트의 끝에서 겨우 ‘나의 아저씨’라는 허무 맹랑한 말로 조사를 거부한다. 이것으로 Kafka의 주인공들이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성공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定義을 거부하는 Odradek의 저항이 이러한 예외 상황의 전형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SE139f.)

권력기관은 분명히 자기의 존재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은 자기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화자는 순진하게,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법치국가에 대한 환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당신은 나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다. 이것은 마치 “Der Prozess”의 Josef K.가 소심하게 규정들에 집착하여 사고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 따라 행동해서 “여기 나의 신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신분증명서와 우선 체포영장을 나에게 보여주시오.”(P11)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두 인물은 정신적으로 조사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화자는 왜 ‘질문’과 ‘조사’에 참여하는 것인가? ‘군’과 ‘민’에 관한 성찰에서와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은 자기 자신이 기반을 잡은 권력으로서 나타나며, ‘권한’을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그것을 결코 옳은 것, 즉 인가된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자기의 권한은 그저 자기가 존재한다는 데에서 연유한다고 조사관은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권력의 이와 같은 자신감은 Kafka의 주인공들의 자신감 결여 내지 자기변명(정당화)충동과는 극단적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군’이 지니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 존재가 권력의 존재토대로서 주장됨으로써 타자가 그 자체로서 권력기관으로 되며, “모든 사람들은 고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로 시작되는 소위 사회화이론 텍스트(H165ff.)

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군’과 ‘시민’의 대결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에 자신감을 가진 자와 자기의 존재에 자신감을 못 가진 자가 대결을 보임으로써 권력의 내적, 심리학적 영역이 전개된다. 이 권력에 존재를 부여하는 것은 광의의 의미에서의 “양심의 가책”<sup>29)</sup>이다. Freud는 마음속의 검열기관으로서 사회적 복종, 자기변명 충동, 죄책감 그리고 양심의 가책등을 에디퍼스 콤플렉스로 인해 야기되는 사건에서 추출해냈다.<sup>30)</sup> 이와 같은 성향은 비록 그것이 머뭇거림의 한 순간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화자로 하여금 ‘조사’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양심의 가책’이 권력의 수단이며, 또 그것은 에디퍼스 콤플렉스적 사건 자체가 거시적 사회 구조들에 의해 규정된다면 권력의 산물이다.

이 ‘조사행위’는 Michel Foucault의 분석에서는 현대 규율사회에서 감시, 검열, 평준화, 이용등의 핵심적 방법이며, 이 규율사회는 법 대신에 규범을 만들어 억압과 처벌과 파괴 대신에 주체들을 開發하여 이용하고 있다.<sup>31)</sup> 이 조사행위에는 감시계급의 기법과 규준을 정하는 재가의 기법이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규준을 정하는 시선이며 또 분류, 처벌하는 감시인 셈이다. 그것 안에는 권력의 의식과 실험의 형식 즉 힘의 시위와 진실의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Kafka의 작품에 나타나는 조사행위묘사와 심문상황들은, 그것들이 비록 상징적, 은유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체험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분문율을 지향하는 권력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Karl Roßmann의 외삼촌은 Karl이 한가하게 발코니에서 있는 것, 책상조정기를 가지고 노는 것,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 그리고 Pollunder의 별장에서 채류등을 감시하고 결국 Karl을 추방하는데, 이러한 조사행위(A38ff.)와 Karl이 승강기 근무규칙을 위반했던 호텔 Occidental에서의 심문장면(A139ff.)은 징계권력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Foucault는 “다양한 힘의 관계들”<sup>32)</sup>로 이해되는 권력을 “왕이 없이

29) Friedrich Nietzsche: a. a. O., S. 881.

30) Sigmund Freud: Das ökonomische Problem des Masochismus, S. 351 ff.

31) Michel Foucault: Überwachen und Strafen, S. 238.

32) Michel Foucault: Sexualität und Wahrheit, S. 113.



도”<sup>33)</sup>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억압적인 권력과 욕구를 서로 용해시키는 대신에 대결시키고 있는<sup>34)</sup> ‘단순한 자동체제’와 아주 다양하면서도 여러계보의 권력행사방식들을 그는 비교하고 있다. 일반적인 감시 - 이것의 중심이 시민사회 이전의 형법을 대치해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감옥이다 - 가 권력 영역의 토대를 이루며, 이 영역은 불문율의 영역으로서 법의 세계를 해체하고 있다.<sup>35)</sup> 훈련, 감시, 분류, 절약, 상징적 표현, 규범화, 사회화등이 이 권력행사의 현대적 방식들이며, 이 방식들은 가정, 학교, 병원, 정신병요양기관, 공장, 병영, 교도소등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그 방식들에 상응하는 심리적, 교육적, 의학적, 경제적 논의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전에는 생산품, 재산, 노동력, 생명등의 탈취를 주관했던 이 권력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탈취”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주된 형태가 아니며, 예측된 힘들을 자극, 강화, 감시, 감독, 조장, 조직하는 다른 요소들 중의 한 요소일 뿐이다. 이 권력은 필연적으로 여러 힘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sup>36)</sup> 억압모델은 폐기되었다. “이 권력관계들은 다른 유형의 관계들(경제의 진행과정, 인식관계, 성적 관계들)에 대해 모습을 드러낸 채 반응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다른 유형들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sup>37)</sup> 감시사회, 규칙엄수사회는 서열이 존재하는 구조이지만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집행기구는 그 사회에서 발견할 수 없다. 감시활동은 “뿔어썩우는 그물 처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어느 정도 까지는 아래에서 위로 또는 사방으로 펼쳐진다. 이 그물은 전체를 ‘붙잡고’, 이 전체에 권력들을 행사하며, 이 권력행사 활동들은 상호 협동적이다. 결국 감시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것이다. 서열화된 규율감시 속에서는 권력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아니며, 우리가 양도할 수 있는 소유권도 아니며 작동되고 있는 하나의

33) Ebd., S. 112.

34) Ebd., S. 101.

35) Ebd., S. 109.

36) Ebd., S. 163.

37) Ebd., S. 115.

자동체제이다. 피라미드의 구조로 인해 우두머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전제 기구인 것이다(...)”<sup>38)</sup>

#### IV. 열려있는 監獄

'감옥'의 像 역시 Kafka의 범정의 비유들의 일부이다. 이것은 도처에 함축되어 있는 법개념들과 권력개념들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한 일이 아니다. Kafka 작품에서 고발과정과 선고과정들이 처벌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 처럼 그는 또한 감옥의 내부와 '자유로운 존재'의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선고과정과 결과로서의 처벌은 구금상태와 사회적 존재가 그렇듯이 하나로 된다. 이와 같은 압축된 표현들로 Kafka는 자기 제한의 문화를 성찰하고, 드러난 것과 잠재적인 것, 표면구조와 내면 구조를 정확하게 재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감옥의 상은 때때로 존재론에서 말하는 존재의 비유에 접근하고 있다. 이 감옥의 상은 고발과 선고, 처벌과 투쟁 처럼 Kafka의 핵심적 모티브의 하나가 된다.

“Ein Bericht für eine Akademie”의 주인공인 Rotpeter는 인간이 됨으로써 감옥으로 부터의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것은 적응과 강제역할, 모방과 자기보호등에 근거한 새로운 감옥으로 연결되고 있을 뿐이다.<sup>39)</sup> “모든 것이 예측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 묶여져 있다.”(J170) 말하자면 단지 좁은 감옥과 넓은 감옥 사에에서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문자대로라면 감옥은 법의 보증인인 범죄자의 감호소이지만, 비유적인 의미로는 정신적인 구금상태를 가리키며, 이 정신적 구금이 법에 대한 복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Michel Foucault에 의하면 刑法史에서는 초기 시민사회에서 감옥이 고문을 대치한다. 즉 생산성을 지향하는 통일된 처벌이 개별적인 체벌을 대신한 것이다.<sup>40)</sup> 판사들이 부과하는 형벌의 본질은 처벌에 있는 것

38) Michel Foucault: Überwachen und Strafen, S. 228 ff.

39) Gerhard Neumann: Ein Bericht für eine Akademie. Erwägungen zum Mimesischarakter Kafkascher Texte, in: DVJS, 49, S. 166 ff.

이 아니고, 선도와 교육과 치유에 있는 것이다.<sup>41)</sup> 이용, 교육, 설명, 개체의 규격화, 개체의 사회편입, 의학적 관찰, 정신감정등이 우선적으로 행해진다. 이런 조치들이 감시 내지 규율사회의 모든 영역들을 점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Foucault에 의하면 감옥은 이런 조치들의 중심지이며 비유이기도 하다. 고문이 '선도기관'으로 대치됨과 동시에 법은 불문율인 규범으로 대치된다. 형사소송의 기능과 정당성은 지속적으로 개혁되어 非法定的 體制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sup>42)</sup>

그러므로 감옥은 원칙적으로 외부 세계인 가정, 학교, 병영, 공장, 정신질환시설에서 일어나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Kafka 작품에서 감옥은 사회적인 제관계의 비유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감옥은 열려있다. 감옥과 외부세계는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 V. 結 論

현행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하는 第三者로서의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판사 자신이 제삼의 '당사자'에 속하거나 아니면 두 당사자들 중의 어느 하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afka의 작품 예를 들어 "Das Urteil"과 "Der Prozeß"에서는 언제나 두 당사자들만이 등장하며, 판사와 고소인이 하나인 것이다. 규범이 되는 法典 역시 幻想으로만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인다. 어쨌든 법전은 두 당사자들의 싸움과 권력관계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판사가 판결하면 그것이 바로 법이 된다. 법이 소송절차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Michel Foucault에 의하면 법은 Hegel 변증법에 따라 상호를 인정해서 얻어진 '보편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법의 대행자들은 "보편적 입장"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며, 경찰과 법의 감시인은 "보편성을 보장하는 권력"이 되지 못 한다. 법과 규범들은 오히려 권력의 기능들이

40) Michel Foucault: Überwachen und Strafen, S. 44 ff.

41) Ebd., S. 17.

42) Ebd., S. 33.

것이다.

군의 시민에 대한 불법개입은 ‘시민’의 법에 대한 환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카리스마적 그리고 합법적인 통치형태들 이면에 숨어 있는 정치적 폭력들 뿐 아니라 모든 권력들이 모든 영역에서 보호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민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것이다.

법 뒤에 숨어 있는 것 즉 폭력을 Kafka는 가차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법 뒤에는 언제나 칼이 숨어 있다. Kafka 작품에서는 현대사회의 제수법들 뒤에도 언제나 칼이 숨어 있다.

관련기관의 개입이 없으면 시민사회의 질서는 권력관계로 나타난다. 상대방과의 거래도 한쪽이 힘이 약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생활 역시 상호간의 권력관계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권력기관은 상대방의 자신감 결여를 토대로 설치될 수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 기관은 조사를 질문의 형식을 통해 시작한다. 자기의 존재에 자신감을 가진 자와 자기의 존재에 자신감을 못 가진 자가 대결하는 것이다. 이 권력에 존재를 부여하는 것은 광의의 의미에서의 ‘양심의 가책’이다. ‘조사행위’는 현대 규율사회에서 감시, 검열, 평준화, 이용 등의 핵심적 방법이며, 이 규율사회는 법 대신에 규범을 만들어 억압과 처벌과 파괴 대신에 주체들을 開發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조사행위에는 감시계급의 기법과 규준을 정하는 裁可의 기법이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규준을 정하는 시선이며 또 분류, 처벌하는 감시인 셈이다. 그것 안에는 힘의 시위와 진실의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Kafka의 작품에 나타나는 조사행위묘사와 심문상황들은, 그것들이 비록 상징적, 은유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체험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분문율을 지향하는 권력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이 조사행위와 심문은 아주 정확하게 징계권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감시 - 이것의 중심이 시민사회 이전의 형법을 대치해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감옥이다 - 가 권력 영역의 토대를 이루며, 이 영역은 불문율의 영역으로서 법의 세계를 해체하고 있다. 훈련, 감시, 분류, 절약, 상징적 표현, 규범화, 사회화등이 이 권력행사의 현대적 방식

들이며, 이 방식들은 가정, 학교, 병원, 정신병요양기관, 공장, 병영, 교도소등에서 개발되고 있다.

감시사회, 규칙엄수사회는 서열이 존재하는 구조이지만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집행기구(= 권력)는 그 사회에서 발견할 수 없다. 감시활동은 “뿔어찌우는 그물 처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어느 정도 까지는 아래에서 위로 또는 사방으로 펼쳐진다. 이 그물은 전체를 ‘붙잡고’, 이 전체에 권력들을 행사하며, 이 권력행사 활동들은 상호 협동적이다. 결국 감시자들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것이다. 서열화된 규율감시 속에서는 권력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아니며, 우리가 양도할 수 있는 소유권도 아니며 하나의 자동체제이다. 피라미드의 구조로 인해 우두머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기구 전체인 것이다(...).”

“모든 작가들 중에서 권력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sup>43)</sup>였던 Kafka는 바로 법률적인 것, 직접적인 지배관계와 노예관계 혹은 억압들 이상으로 나타나는 권력행사방식들을 그의 잠언과 단장에서 묘사하고, 이 방식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43) Elias Canetti: Der andere Prozeß, S. 86.

## Literaturverzeichnis

### I. Texte

- A = Kafka, Franz: Amerika. Roman, hg. v. Max Brod, Frankfurt a. M. 1983
- H = Kafka, Franz: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hg. v. Max Brod, Frankfurt a. M. 1983
- J = Janouch, Gustav: Gespräch mit Kafka. Aufzeichnungen und Erinnerungen, Frankfurt a. M. 1981
- P = Kafka, Franz: Der Prozeß. Roman, hg. v. Max Brod, Frankfurt a. M. 1983
- SE= Kafka, Franz: Sämtliche Erzählungen, hg. v. Paul Raabe, Frankfurt a. M.1992

### II. Sekundärliteratur

- Brod, Max: Über Franz Kafka, Frankfurt a. M. 1966
- Canetti, Elias: Der andere Prozeß. Kafkas Briefe an Felice, München 1969
- Deleuze, Gilles und Guattari, Felix: Für eine kleine Literatur, Frankfurt a. M. 1976
- Foucault, Michel: Sexualität und Wahrheit. Der Wille zum Wissen(1. Bd.), Frankfurt a. M.1977
- Ders.: Überwachen und Strafen. Die Geburt des Gefängnisses, Frankfurt a. M.1977
- Freud, Anna: Das Ich und die Abwehrmechanismen, München 1974
- Freud, Sigmund: Das ökonomische Problem des Masochismus. in: Studienausgabe Bd. III, Frankfurt a. M. 1975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Werkausgabe Bd. 7, Grundlinien der

- Philosophie des Rechts, Frankfurt a. M. 1970
- Hiebel, Hans Helmut: Die Zeichen des Gesetzes, München 1989
- Jolles, Andre: Einfache Formen. Legende, Sage, Mythe, Rätsel, Spruch, Kasus, Memorabile, Märchen, Witz, Tübingen 1974
- Kaiser, Gerhard: Franz Kafkas Prozeß. Versuch einer Interpretation, in: Euporion 52, 1958
- Lacan, Jacques: Schriften III. Aus dem Französischen von Norbert Haas, Franz Kaltenbeck, Friedrich A. Kittler, Hans-Joachim Metzger, Monika Metzger und Ursula Rütt-Förster, Olten und Freiburg 1980
- Lorenzen, Paul und Schwemmer, Oswald: Konstruktive Logik, Ethik und Wissenschaftstheorie, Mannheim 1973
- Marx, Karl: Grundriß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Frankfurt/Wien o.J.
- Neumann, Gerhard: Ein Bericht für eine Akademie. Erwägungen zum Mimesis-Charakter Kafkascher Texte, in: DVjS. 49, 1975
- Nicolai, Ralf: Ende oder Anfang. Zur Einheit der Gegensätze in Kafkas Schloß, München 1977
- Nietzsche, Friedrich: Zur Genealogie der Moral, in: Werke in drei Bänden, hg. v. Karl Schlechta, München 1973
- Scholem, Gershom: Über einige Grundbegriffe des Judentums, Frankfurt a. M. 1976
- Stölzel, Christoph: Kafkas böses Böhmen. Zur Sozialgeschichte eines Prager Juden, München 1975
- Watzlawick, Paul und Beavin, Janet H und Jackson, Don D: Menschliche Kommunikation. Formen, Störungen, Paradoxien, Bern/Stuttgart/Wien 1974
- Weber, Max: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ß der verstehenden Soziologie, 1. und 2. Halbband, hg. v. Joh. Wickelmann, Köln/Berlin 1964
- Ders.: Die Typen der Herrschaft,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ß der verstehenden Soziologie, 1. und 2. Halbband, hg. v. Joh. Wickelmann, Köln/Berlin 1964

## Zusammenfassung

# Eine Studie über Recht und Macht bei Kafkas Werken

Kwon, O-Sang

Der Dritte, der nach geltendem Recht als Richter entscheidet, fehlt. Das heißt nur, daß er selbst zur Partei gehört, d. h. einer dritten Partei zugehört oder parteilich sich einer der zwei bestehenden Parteien anschließt. Entsprechend treten in Kafkas Werken – z.B. im Urteil oder im Prozeß – immer nur zwei Parteien auf, sind Richter Ankläger eins. Auch ein regulativer Rechts-Kodex scheint nur als Phantasma zu existieren, jedenfalls als etwas dem Kampf der Parteien, Machtbeziehungen Sekundäres. Das Urteil erfolgt also dezisionistisch. Das Gesetz ist statt Voraussetzung Resultat des Rechtsprozesses.

Keineswegs hat nach Foucault das Gesetz die Hegelsche Form der im Allgemeinen aufgehobenen Dialektik gegenseitiger Anerkennung, seine Agenten formieren nicht den allgemeinen Stand, Polizei und Rechtsaufsicht bilden nicht die sichernde Macht des Allgemeinen. Gesetze und Nomen sind vielmehr Funktionen der Macht.

Der Übergriff des Militärs entlarvt die Rechts-Illusionen des Zivilisten. Mithin geht es nicht allein um politische Gewalten, wie sie sich hinter traditionellen, charismatischen und legalen Herrschaftsformen verbergen mögen, sondern um all jene Mächte, die im sozialen, ökonomischen, privaten und intimen Bereich auf den Arglosen hereinbrechen, der auf den Schutz vertraut.

Was hinter dem Gesetz als ultima ratio und als seine fundamentale



Begründung steht, die Gewalt, läßt Kafka nackt als solche hervortreten. Hinter dem Gesetz steht immer das Schwert. Für Kafka steht auch hinter den modernen Sozialtechniken noch immer das Schwert.

Ohne Eingriff der Gewaltinstanz erweist sich die zivile, bürgerliche Ordnung als Machtverhältnis. Der Tausch wird außer Kraft gesetzt, wenn der eine dem anderen gegenüber nicht mächtig genug ist, ihn zu erzwingen. Auch das zivile Leben erweist sich als von Machtbeziehungen und Kräfteverhältnissen bestimmt.

Die Instanz der Macht scheint sich nur auf der Basis der Unsicherheit des Anderen etablieren zu können. Sie beginnt die Prüfung in der Form der Fragestellung. Der in seiner Existenz Sichere wird dem in seinem Sein Verunsicherten gegenübergestellt. Es ist das schlechte Gewissen, das der Macht Existenz verleiht. Die Prüfung ist nach Michel Foucault ein zentrales Verfahren der Überwachung, Kontrolle, Nivellierung und Vernützlichung in der modernen Disziplinargesellschaft, welche die Norm gegen das Gesetz stellt, die Nutzbarmachung der Subjekte gegen Repression, Abstrafung und Vernichtung. Die Prüfung kombiniert die Techniken der überwachenden Hierarchie mit denjenigen der nomierenden Sanktion. Sie ist ein normierender Blick, eine qualifizierende, klassifizierende und bestrafende Überwachung. In ihr verknüpfen sich das Zeremoniell der Macht, die Entfaltung der Stärke und die Ermittlung der Wahrheit. Kafkas Prüfungsdarstellungen und Verhörsituationen, seien sie auch zumeist höchst symbolisch, metaphorisch konzipiert, weisen auf diese Erfahrung und implizieren durchaus jenen aufs Extrajuridische sich richtenden Machtbegriff. Sie entsprechen auch aufs genaueste dem Begriff der Disziplinarmacht.

Universale Kontrolle - ihr Zentrum ist das die Marter des

vorbürgerlichen Strafrechts ablösende produktiv fungierende Gefängnis - konstituiert ein Feld der Macht, welches als extrajudisches die Welt des Gesetzes auflöst. Disziplinierung, Kontrolle, Qualifizierung, Ökonomisierung, Symbolisierung, Normalisierung, Sozialisierung usw. heißen die modernen Prozeduren, die in Familien, Schulen, Kliniken, psychiatrischen Anstalten, Fabriken, Kasernen und Gefängnissen entwickelt werden.

Die Überwachungs- und Disziplinierungsgesellschaft ist zwar hierarchisch strukturiert, aber eine definierbare Gewaltinstanz ist in ihr nicht auszumachen. Die Kontrolle wirkt wie ein Beziehungsnetz von oben nach unten und bis zu einem gewissen Grad auch von unten nach oben und nach den Seiten. Dieses Netz hält das Ganze und durchsetzt es mit Machtwirkungen, die sich gegenseitig stützen: pausenlos überwachte Überwacher. In der hierarchisierten Überwachung der Disziplinen ist die Macht keine Sache, die man innehat, kein Eigentum, das man überträgt, sondern eine Maschinerie, die funktioniert. Zwar gibt ihr der pyramidenförmige Aufbau einen Chef, aber es ist der gesamte Apparat, der Macht produziert.

Kafka, unter allen Dichtern der größte Experte der Macht, stellt in seinen Aphorismen und Fragmenten eben solche - über Juridische, über direkte Herrschafts- und Knechtschaftsverhältnisse oder Repressionen hinausgehende - Machtprozeduren dar und reflektiert auch theoretisch über sie.